

# 최순실 '교육 농단' 징역 3년... 첫 선고

### 재판부, "비뚤어진 모정,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켜... '백도 능력' 사실이란 의구심 만들어"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 명목으로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학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냈다"라며 "부정한 영향력을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 청탁을 전달토록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주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라며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수락하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합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그릇된 모정(母情)을 짚고 넘어갔다.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며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엮보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라며 "뉘가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씨는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라며 "목적의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최씨와 친하게 지내며 자녀에 관한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가 됐고, 반대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다"라고 밝혔다.



"잘해봅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을 올린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말 대신 '백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정씨 학사 과정을

위해 공문을 위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문서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탁과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

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최씨는 정씨를 두고 "정치적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의원식 "국회 정권교체 아직 안 돼"

의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실 정권교체가 됐지만 국회에서 정권교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근대 기념치유센터 '숨' 4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국회에 있지만 그것을 뚫어야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부겸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문

### 정부청사관리소에 청소·경비 등 2425명 근무중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이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현재 행정부에는 283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정부청사관리소에는 242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중이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와 특수경비 통신관리, 승강기, 안내 등 7개 분야 1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개별 그룹과 대화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4대그룹과의 첫 간담회에서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정책 방향에 대해 개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4대그룹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추후 개별 그룹과의 회동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가진 삼성·현대·SK·LG 등 4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많은 그룹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별 그룹에서 더 관심을 가지는 이슈일 수 있다"며 "향후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희 LG 사장이 각 그룹 대표로 참석했다.

약 60여분간에 걸쳐 이뤄진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많은 그룹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별 그룹에서 더 관심을 가지는 이슈일 수 있다"며 "향후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업 측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며 "정부 내 경제팀의 의견 교환 내용도 상세하게 말씀드려 기업 측에서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모임에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미팅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라고 연락이 왔다"며 "오늘 기업 관계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내용을 청와대에 가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자유한국당' 5행시 지어... "소멸할 길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 5행시를 지으며 비난했다. 추 대표는 "'자'유당 시절 독선 정치, '유'신시절 독재정치, '한'나라당 시절 독기정치, '국'민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한다"고 5행시를 읊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당명 5행시 공모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추경과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면서 겨우 5행시를 쓰고 있는나는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5행시를 바라신다면 제가 한번 시 한 수를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기술만으로는 다음 집권을 기약 못하고 소멸할 길만 남아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국민의 고통에 함께할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내각 구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협치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집단지성을 잃어버렸다"며 "국회에 들어와야 협치가 될 것이 아닌가.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처한 엄연한 정치적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협치를 포기 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 상황을 악용해서 자유한국당이 무한 발목잡기를 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성숙한 정치를 마지막까지 기대하면서 조속한 원내복귀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http://www.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마을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